

## 이광수의 『무정』에 대한 북한문학의 문학사적 인식의 변화 양상 고찰

오 태 호\*

### 요 약

본고는 한국의 '근대적 장편소설의 효시'로 평가받는 이광수의 장편소설 『무정』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북한 문학에서 바라본 『무정』에 대한 문학사적 인식의 변화 양상을 고찰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이광수의 『무정』에 대한 북한문학사의 평가는 1980년대를 기준으로 양분된다. 즉 1980년대 이전 비난 일색이던 방식에서 1986년을 기점으로 점차 긍정성과 부정성을 함께 고찰하는 양면적 평가가 진행된다. 북한에서도 1980년대 중반 이래로 긍정적인 평가의 대상으로 이광수와 『무정』에 대한 문학적 공과를 함께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문학사에서 1950년대 이래로 1970년대까지는 『조선문학통사』(1959) 중심의 '부르조아 반동문학가'로만 호명되던 이광수가 1980년대 중반에 『조선문학개관』(1986)에 이르면 '신문학'이 지닌 '부르조아 계몽문학'의 특질을 소설에 반영한 작가이자 『무정』의 작가로 호명된다. 이어서 1990년대 『주체문학론』(1992)에 이르면 『개척자』의 작가로서 더욱 주목을 받게 되며, 가장 최근의 평가인 『조선문학사7』(2000)에 이르면 "착취 사회의 사회악에 대한 폭로"가 지닌 진보적 의의와 함께 언문일치체와 '근대소설 양식의 확립', 현대소설의 개척 공로를 긍정적으로 평가받게 된다.

다만 남한에서 근대적 장편소설의 효시로 평가받는 『무정』이 아니라 그 다음 작품인 『개척자』가 문학사적으로 더 나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한 문학사의 관점의 차이가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의 대상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에 불과하던 부르조아 반동작가에서 문학적 공로를 인정받는 부르조아 계몽주의 작가로 평가가 전환되고, 『무정』과 『개척자』 등의 작품에 문학사적 평가가 재고된 것은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남북한 문학에서의 텍스트적 인식의 차이를 통해 문화적 이질성을 확인함으로써 오히려 역설적으로 남북한 통합문학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주제어: 이광수, 『무정』, 『개척자』, 부르조아 반동작가, 부르조아 계몽문학, 근대소설 양식의 확립, 현대소설 개척 공로, 언문일치체

## 목차

1. 서론
2. '부르조아 반동문학가'로서의 이광수 비판
3. 『무정』의 문학사적 의의의 복원
4. 『무정』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입체적 평가
5. 결론

## 1. 서론

본고는 한국의 '근대적 장편소설의 효시'로 평가받는 이광수의 장편소설 『무정』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북한 문학에서 바라본 『무정』에 대한 문학사적 인식의 변화 양상을 고찰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1950년대 이래로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50여 년 동안 이광수는 북한 체제의 담론적 변화와 맞물리면서 부정적 평가의 대상에서 긍정성과 부정성을 함께 아우르는 평가의 대상으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무정』은 남북한이 분단되기 이전 시기인 1917년 『매일신보』에 6개월 동안 연재되면서 북한에서도 문학사적 의의를 인정받고 있는 작품이다. 본고는 남한에서의 이광수 작가론, 작품론 등의 연

구 외연을 북한문학으로까지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특히 분단문학 70년 동안 이질화된 체제 속에서 두드러진 문학적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역설적으로 남북한 문학의 통합문학사 기술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체사상을 표방하는 북한사회에서 문학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전유한 ‘주체사실주의’를 지향하며 ‘수령-당-인민’의 삼위일체를 강조하는 당문학적 성격을 띤다. 1945년 해방 이후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연대와 애국주의를 강조하던 북한 사회에서 ‘주체’의 문체는 1953년 스탈린의 사망과 한국전쟁 이후 김일성의 권력투쟁 과정에서 발생된다.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에 대해 김일성이 14세에 ‘타도 제국주의 동맹(1926)’을 결성한 것에서 맹아를 찾고, 1930년 초 ‘카륜회의’에서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는 당조직을 갖추었다고 주장하지만<sup>1)</sup>, ‘주체’라는 개념이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1955년 12월 28일 김일성이 당 선전선동 일꾼들 앞에서 행한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한 데 대하여』라는 연설에서부터이다.<sup>2)</sup> 이후 ‘경제에서의 자립, 정치에서의 자주, 국방에서의 자위, 외교에서의 자주’를 내세우면서 1970년 11월 조선노동당 제5차 당대회에서 주체사상을 당이념으로 공식화하여 노동당 규약에 명문화하게 된다. 따라서 ‘주체문학’이란 공식적으로는 주체사상을 유일사상 체계로 결의한 1967년 5월의 당중앙위원회 제4기 15차 전원회의<sup>3)</sup>와 주체사상을 당의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규정한 1970년 11월의 제5차 당대회 이후의 문학을 말한다.

해방 이후 북한문학의 흐름은 크게 1967년 이전과 이후(혹은 1960년대까지와 1970년대 이후)로 구분된다. 권영민은 ‘북한문학’

1)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 『조선문학사 8』, 사회과학출판사, 1992, 5면.

2) 서대숙, 서주석 역,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청계연구소, 1989, 120-140면.

3)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 『조선문학사 14』, 사회과학출판사, 1996, 29면.

을 ‘북한문학과 사회주의 국가 건설, 전후의 북한문학, 주체 시대의 문학, 1980년대의 북한문학’으로 시기를 구분<sup>4)</sup>하면서 1960년대 이전의 문학이 사회주의의 이념, 계급적 요소, 인민성의 요건 등을 중시하고 집단적인 것과 전형적인 것의 창조를 강조했다면, 1960년대 이후의 문학에서는 주체적인 것과 혁명적 투쟁 의식이 내세워짐으로써 이념성이 강화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리하여 1970년대부터 당의 유일사상 체계를 확고히 하고 모든 사회를 주체사상화한다는 당의 방침이 ‘주체의 문예이론’을 통해 전면화되고 있다고 파악한다. 그리고 주체의 문예이론이 일반화된 1970년대의 문학예술의 내용은 크게 첫째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적 위업을 찬양한 것, 둘째는 북한의 사회주의 국가 건설의 위대성을 선전하는 것, 셋째는 남한에 대한 혁명적 통일의 과제를 강조하는 것 등으로 대별된다고 파악한다.<sup>5)</sup>

김재용은 북한문학의 형성을 1967년을 기준으로 크게 ‘제1부 해방부터 유일사상체계 확립까지(1945~1967)’와 ‘제2부 유일사상체계 확립부터 현재까지(1967~1993)’로 나누어 살펴보면서 1970년대 문학을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 후 항일 혁명문학의 유일한 혁명전통화’, 1980년대 문학을 ‘숨은 영웅을 통한 사회주의 현실주제 등장’, 1990년대 이후의 주제로는 ‘세대 간의 갈등, 과학기술문제, 조국통일 주제 등의 새로움’ 등이 주목된다고 분석한다<sup>6)</sup>

남한에서 이광수의 『무정』은 한국 최초의 근대적 장편소설로서 한국문학의 기념비적 텍스트로 평가된다. 김현<sup>7)</sup>에 의하면, 『무정』

4)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2』, 민음사, 2002, 411-452면.

5) 권영민, 『북한의 문학을 어떻게 볼 것인가』, 권영민 편, 『북한의 문학』, 을유문화사, 1989, 13-27면.

6) 김재용, 『북한 문학의 역사적 이해』, 문학과지성사, 1994, 11-31면.

7) 김현, 『이광수와 주요한의 문학사적 위치』,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 115-128면.

의 문학사적 의미는 ‘한국문학 최초의 장편소설, 한글 문체를 처음으로 완성시킨 작품, 주체의 객관화(반성적 사고의 가능), 최초의 연애 소설’ 등으로 주목된다. 김윤식<sup>8)</sup>에 의하면 ‘시대적 진취성(상승계층의 세계관 최대치를 드러낸 점), 사제 관계의 견고성(교사·학생의 관계 구조), 정결성-누이 콤플렉스(혹은 순진성), 한(恨)의 표정, 작가의 자전적 요소와 『무정』의 관련성’ 등이 주목된다. 권영민<sup>9)</sup>에 의하면 ‘계몽적 담론의 서사적 구현 성공, 자아의 각성과 개인의 발견, 사랑의 문제 중요시, 교시적 기능의 강조’ 등이 신소설의 한계를 극복한 근대소설로서의 성과에 해당한다.

이러한 남한의 계몽주의적 인식과 자유연애 담론을 강조하는 대표적 인식과는 다르게 이광수 문학은 북한에서 비판적 평가의 대상이 된다. 크게 보자면 198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하여 비난의 대상에서 비판적 평가의 대상으로 문학사적 인식이 변모되고 있다. 1980년대까지 ‘남북한에서의 이광수 문학 연구사’를 검토한 김영민<sup>10)</sup>에 의하면 이광수는 안함광의 『조선문학사』(1956)에서는 구체적인 작품 분석에 따른 ‘반리얼리즘적 작가’로 평가되다가, 『조선문학통사』(1959)와 안함광의 『조선문학사』(1964), 『조선문학사』(1980)에 이르면서 ‘반동적 부르조아 문학의 대표적 작가’로 간략하게 호명되고, 다시 은종섭의 『조선 근대 및 해방전 현대 소설사연구』(1986)와 『조선문학개관』(1988)에 이르러 긍정적 평가의 대상으로 제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황정현<sup>11)</sup>은 『조선문학개관』(1986) 이후 북한문학사에서 이광수 문학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 내

8)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1』, 숲, 1999, 566-619면.

9)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1』, 민음사, 2002, 199-205면.

10) 김영민, 『남·북한에서의 이광수 문학 연구사 정리와 검토』, 『동방지』 83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57-192면.

11) 황정현, 『북한 문학사의 시각과 이광수 연구사』 『조선문학개관』 이후의 인식 변화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제66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6, 375-403면.

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변화의 기점으로서의 ‘1986년’이 지닌 의미를 은종섭의 『조선 해방전 근현대 소설사』 머리말에서 ‘당의 문학사에 대한 새로운 지침, 사료 중심의 전면적 연구와 재검토, 주체사상의 방법론적 적용’ 등을 거론하면서 1980년 제6차 노동당 대회에서 후계자가 된 김정일이 1980년대 중반 이후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을 강조한 점을 추적해낸다.

본고는 이광수 연구사를 검토한 김영민과 황정현의 논조를 참고하면서도 『무정』을 중심으로 2000년대까지 시기를 확장하여 북한문학에서 바라본 『무정』에 대한 문학사적 인식의 구체적인 변화 양상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조선문학통사』(1959), 『조선문학사(19세기말~1925)』(1980), 『조선문학개관』(1986), 『주체문학론』(1992), 『문학대사전』(1999), 『조선문학사7』(2000) 등을 통해, 부르주아 반동문학가로 평가절하되던 1950년대 인식으로부터 『개척자』(1918)를 중심으로 1910년대 초기소설에 대한 긍정적 기여를 주목한 2000년대 평가까지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북한문학사의 『무정』에 대한 인식론적 변화 양상을 살펴보는 작업은 ‘근대적 장편소설의 효시’로 평가되는 『무정』 탄생 100주년을 기념함과 동시에 남북한 문학사의 이질적 관점을 확인함으로써 역설적으로 남북한 통합문학사의 서술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2. ‘부르주아 반동문학가’로서의 이광수 비판

### 1) 1950~60년대 이광수 비판 - 『조선문학통사』(1959)

북한문학사에서 1950년대 반종파투쟁이 정리된 이후 쓰여진 『조

선문학통사』(1959)에서 이광수의 존재는 ‘1920년대 프롤레타리아 문학’에 대비되는 부정적 표상의 문인으로 드러난다.<sup>12)</sup>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함께 항일무장투쟁을 강조하던 당시 북한문학에서 대표적인 친일파인 이광수를 문학사적 존재로 적절히 객관화하여 거명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광수의 작품에 대한 언급은 없는 채로, 다만 1920년대 프롤레타리아문학의 출현에 대비되는 자연주의 문학의 대변자로 뭉뚱그려 비판된다.<sup>13)</sup>

이 시기 자연주의문학은 전락하는 지배계급의 반동사상의 대변자로서의 자기의 본질을 더욱 로골적으로 체현하면서 나타났는데, 이 반동문학가들은 일제에 대하여 투항, 타협, 굴복하는 패배주의적 퇴폐사상을 전파하면서 신흥하는 노동계급의 세력에 대하여서는 야수적인 공포를 가지고 모두 집결되어 진출하였다. 필연적으로 그들 문학에는 소극적이며, 퇴폐적이며 세기말적인 여러 경향들이 나타났으며, 유물론과 사실주의를 거부하고 <예술을 위한 예술>을 주장하는 반동적이며 기만적인 설교들이 나타났다.<sup>14)</sup>

인용문에서 확인되듯 1910년대 후반부터 1920년대에 이르는 자연주의 문학은 몰락하는 지배계급을 대변하는 “반동사상의 대변자” 역할을 자임한 것으로 비판된다. 그러면서 이광수, 김동인, 염상섭

- 12) 김영민의 경우 안함광의 『조선문학사』(1956)를 해방 후 북한에서 출간된 최초의 본격적인 문학사로 주목하여 1950년대 북한문학사의 인식을 평가한다. 하지만, 본고는 대학 교과서용으로 집필된 개인의 저작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당문학의 입장을 견지하는 북한문단의 공식적 견해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논의에서 참고만 했을 뿐 분석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는다.
- 13) 안함광은 이광수의 『무정』의 특질을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투항사상 선전, 유심론적·관념론적 세계관의 확성기적 역할, 세계주의 사상의 선전’ 등의 세 가지로 요약하면서 ‘철저한 반리얼리즘’의 작품으로 비난한다.(안함광, 『조선문학사』, 연변교육출판사, 1956, 47-50면.)
- 14)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제2장 1919~1930년의 문학』, 『조선문학통사(현대문학편)』, 사회과학출판사, 1959(인동, 1988), 33면.

등은 ‘반동문학가’로 함께 묶이면서 일본제국주의의 지배 논리에 “투항, 타협 굴복하는 패배주의적 퇴폐사상을 전파”한 나팔수로서 비난된다. 그리고 개별 작품에 대한 구체적 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채 “소극적이며, 퇴폐적이며 세기말적인” 경향들을 지녔다고 낙인을 찍으며, “유물론과 사실주의를 거부”한 채 “예술을 위한 예술”을 주장하는 “반동적이며 기만적인 설교”를 늘어놓는 작가로 비판된다.

뿐만 아니라 이광수, 김동인, 염상섭 등은 “부르조아문학의 허위성, 기만성, 반동성을 폭로공격하는 사업”의 대상자로서 ‘부르조아 반동문학의 일부’로 비판받거나, ‘최남선, 주요한, 양주동, 정로풍 등과 더불어 “반동적 민족주의문학리론의 고취자”<sup>15)</sup>로 평가절하된다. 이렇듯 이광수는 1950년대 북한문학사에서 반동적 부르조아 문학의 대표적 이론가로 비판될 뿐이지 구체적인 텍스트에 대한 언급은 부재하다. ‘프롤레타리아문학’은 선이고, 그 이외의 문학은 배제되어야 할 ‘부르조아 반동문학’의 자장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 1950년대 이후 북한문학사의 주된 인식인 것이다.

## 2) 1970년대 『혁명가의 안해』 비판

- 『조선문학사(19세기말~1925)』(1980)

주체사상으로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립’된 1970년대에 이르면, 이광수에 대한 평가는 이전 시기와 다르게 미묘한 변화를 가져온다. 『조선문학사(19세기말~1925)』(1980)에서는 우선 ‘반동작가’로 거명된다. 즉 “반동작가 리광수, 김동인, 주요한 등이 동인이 된 『창조』(1919), 반동작가 럽상섭, 오상순 등이 동인이 된 『폐허』(1920), 반동작가 박종화, 박영희, 김기진 등이 동인이 된 『백조』(1922) 등

15)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제2장 1919~1930년의 문학』, 『조선문학통사(현대문학편)』, 사회과학출판사, 1959(인동, 1988), 91면.

이 시기 부르주아문예잡지들을 무대로 자연주의, 허무주의, 퇴폐주의, 소극적감상주의, 반동적낭만주의 등을 퍼뜨리기에 광분한 각이한 문학류파들<sup>16)</sup>이 존재했음이 거론된다. 즉 이광수는 김동인, 주요한 등의 1910년대 근대소설과 근대시의 초기 작업을 선도한 작가로서 ‘부르주아 반동성’이 비판되는 핵심 문인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시기는 소제목에서 드러나듯 ‘프로레타리아 문학’을 강조하면서 ‘부르주아 문학’을 배제하고 평가절하하기 위해 “부르주아반동문학을 반대하여 투쟁한 프로레타리아문예평론”을 주목한다. ‘부르주아 문학’에는 ‘자연주의, 허무주의, 퇴폐주의, 소극적 감상주의, 반동적 낭만주의’ 등 사실주의에 반한 부정적 경향들이 모두 포함된다. 그리하여 ‘부르주아 문학’의 기수 역할을 수행한 이광수 혹은 이광수의 문학은 “첫째가는 투쟁대상”이었음이 강조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리광수는 감옥에서 나온 혁명가들을 모욕하는 내용의 작품 <혁명가의 안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리광수는 또 조선 사람은 일본제국주의자들과 <동조동근>이라고 떠벌이던놈입니다.》(《사회주의문학예술론》, 77페이지)

리광수는 우리 인민들의 민족자주의식을 말살하고 조선사람을 《황국신민화》하기 위한 일제의 식민지동화정책을 극구 찬양하면서 인민들의 혁명의를 마비시키는 퇴폐적인 부르주아문학작품을 퍼뜨리는데 앞장에 선 가장 반동적인 작가였다

따라서 이 시기 프로레타리아 문학과 문예리론의 발전을 추진시키는데서 리광수의 반동문학을 폭로분쇄하는 것은 주요한 과업의 하나로 제기되었었다.<sup>17)</sup>

16) 박종원·최탁호·류만, 『제2장 일제식민지통치하의 사회현실과 무산계급의 리익을 반영한 문학 제2절 무산계급의 리익을 반영한 프로레타리아 문학』, 『조선문학사(19세기말~1925)』,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0, 176면.

17) 박종원·최탁호·류만, 『제2장 일제식민지통치하의 사회현실과 무산계급의 리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광수에 대한 문학사적 평가의 근간이 되는 것은 ‘김일성의 교시’이다. 주체사상으로 무장된 사회주의 국가로서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이 역사적 전범이 되는 북한에서 이광수는 사회주의 혁명가들을 모욕한 작품 『혁명가의 안해』를 쓴 ‘떠벌이’로 비난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혁명가의 안해』는 1930년대 초에 쓰여진 이광수의 중편소설이라는 점에서 1910~1920년대 문학을 비판하기 위한 전거로는 적절하지 않다. 하지만 인용문에서는 적극적인 친일인사로 돌아선 뒤에 이광수의 태도가 초기 이광수 문학의 문학사적 비판의 근거로 오용되고 있는 셈이다.

주체사상의 창시자로서 김일성의 교시와 말씀이 당과 인민을 지도하는 사회에서 사회주의 혁명가들을 모욕하는 소설을 쓴 작가 이광수에게 가해진 “떠벌이던놈” 등의 비판과 욕설은 지극히 당연한 관점으로 인식된다. 더구나 일제의 식민 지배 전략을 수용한 채 황국신민화를 선도한 작가적 세계관은 ‘항일무장투쟁’을 역사적 전범으로 삼는 사회에서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친일반민족작가로서의 이광수의 반동성’을 비판하는 것과 “퇴폐적인 부르주아 문학작품”의 생산자로서의 작가를 비판하는 것은 다른 목소리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1920년대 문학 텍스트가 아니라 1930년대 작가의 사상적 관점을 비판하는 태도가 1970년대 문학사에서 이광수를 비난하는 주된 목소리에 해당한다.

이렇듯 『조선문학통사』(1959)에 이어 『조선문학사(19세기말~1925)』(1980)에서도 이광수는 ‘반인민적이고 퇴폐적인 반동작가’로 낙인찍힌다. 즉 3.1 운동 이후 발생한 “부르주아문학에는 반인민적이며 퇴폐적인 경향이 더욱 강화되고 여러 가지의 반동적사조들이 발생”했는데, 그 앞자리에 이광수가 위치하는 것이다. 특히 1920년

익을 반영한 문학 제2절 무산계급의 리익을 반영한 프롤레타리아 문학], 『조선문학사(19세기말~1925)』,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0, 179면.

대 중반 카프를 위시한 ‘프롤레타리아 문학’을 강조하기 위해 적대적 개념으로서의 부르주아 문학이 내포한 ‘반인민적, 퇴폐적, 반동적 사조들’을 비난하는데, 그 제일 앞자리에 이광수가 위치된다. 다만 1930년대 이광수의 세계관과 작품이 1920년대 문학을 비난하는 데에 동원되고 있다는 점은 비판의 문학사적 근거가 실체 없는 추상적 공박에 해당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 3. 『무정』의 문학사적 의의의 복원

#### 1) 1980년대 중반 『무정』 비판 - 『조선문학개관』(1986)

1980년대에 쓰여진 『조선문학개관』(1986)에 이르면, 이광수에 대한 평가가 기존 문학사적 평가와 확연하게 달라진다.<sup>18)</sup> 즉 이광수의 소설적 기여도가 높게 평가되면서, ‘부르주아계몽문학으로서의 <신문학>’이라는 소제목 하에 산문 분야에서 “이광수 등에 의하여 소설 형식이 더욱 발전되어갔다.”라는 평가를 받기에 이른다. ‘신문학’이 ‘부르주아 계몽문학’적 특징을 담보하고 있으며, 이광수에 의해 소설 형식의 발전이 가능했다는 평가는 이광수의 문학사적 위치를 명확히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음을 드러낸다.

뿐만 아니라 이광수의 생애를 객관적으로 복원하면서, “일본류학

18) 은종섭은 『조선 근대 및 해방전 현대소설사 연구』(1986)에서 『조선문학개관』의 시각과 유사하게 이광수의 『무정』을 평가한다. 즉 『무정』과 『개척자』 등의 1910년대 이광수의 소설이 언문일치체를 이루고 있으며, 지식 청년들의 생활을 형상화하면서 봉건적 결혼제도 부정, 개성 해방, 과학문명의 획득, 산업 발전의 지향 등을 표현하면서 ‘민족개량주의적 사상’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긍정성과 부정성을 함께 평가한다. (은종섭, 『조선 근대 및 해방전 현대소설사 연구』2,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 100-109면.)

시에에는 도쿄류학생들의 〈독립선언서〉 작성에도 참가하고 중국으로 건너가서는 상해림시정부에도 관여하는 등” 독립운동에 참가한 사실을 기록한다. 일제의 앞잡이로 “동조동근을 떠벌이던 놈”이라는 김일성의 교시에 적시된 비난에서 진일보한 객관적 평가가 수행되고 있는 셈이다. 작가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첫 단편소설로 언급하고 있는 『젊은 꿈』(1915)에 대해서도 “봉건적인 혼인제도로 하여 불행을 겪는 소년들의 비애와 변민을 통하여 낡은 사회의 불합리성을 비판하고 부르조아적인 〈자유연애〉사상을 고취”하였다면서 작품의 긍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무정』에 대해서도 ‘문명개화와 부강발전의 계몽사상’이 추구되고 있으며, 근대문명과 개성의 자유를 지향하는 신교육 사상과 자유연애 사상이 고취되고 있고, 언문일치체가 실질적으로 실현된 작품이라고 평가하게 된다.

봉건적인 락후성과 식민지민족으로서의 불행한 처지에서 벗어나 문명개화와 부강 발전을 이룩하려는 계몽사상은 장편소설 들인 『무정』(1917), 『개척자』(1918) 등에서 더욱 깊이있게 추구되고 있다.

이 소설들에서 리광수는 봉건적인 속박을 반대하고 근대문명과 개성의 자유를 지향하는 지식청년들의 성격과 운명을 통하여 부르조아적인 신교육사상과 〈자유연애〉, 〈자유결혼〉 사상을 긍정하며 고취하고 있다.

특히 장편소설 『무정』에서는 민족을 위한 교육운동에 나섰던 박진사가 두 아들과 함께 일제에게 체포되어 옥사하는 사실, 삼랑진수채참상을 보여주는 장면 등을 통하여 (중략) 사람들에게 당대 사회현실에 대한 불만을 자아내게 하고 민족주의적이며 계몽적인 지향을 복돋아주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이 작품들이 당시 독자들 특히 청년들속에서 많이 읽히운 것은 이처럼 일제식민지통치하의 사회현실과 우리 인민들의 비참한 처지, 락후한 상태에서 벗어나 근대문명으로 나아가려

는 지향 등이 일정하게 반영되어있는 것과 관련되었다.

리광수는 언어문체면에서도 신소설에서 볼수 있었던 비생활적인 요소들을 현저히 극복하고 독자대중이 일상적으로 쓰는 말과 다름없는 글로 표현함으로써 언문일치를 실질적으로 실현하였다.<sup>19)</sup>

인용문에서 드러나듯 이광수의 『무정』이 표방한 근대문명의 지향, 계몽주의적 관점과 자유연애 사상, 언문일치체의 실현 등에 대한 평가는 남한 문학사의 평가와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객관화되어 있다. 즉 계몽사상이 깊이 있게 추구된 점, 부르주아적인 신교육사상과 자유연애 사상이 긍정적으로 고취된 점, 당대 사회 현실에 대한 불만, 민족주의적이고 계몽주의적인 지향, 청년 독자들을 사로잡은 문체의 대중성, 근대문명에의 지향 등이 상찬된다. 뿐만 아니라 언문일치체의 실현이 강조되면서, “초기작품들에서 부르주아적인 계몽사상을 표현하고 새로운 예술형식과 생활적인 문장표현들을 탐구리용함으로써 소설문학을 발전”시켰음이 고평된다.

하지만 인용문에 뒤를 이어 “반동적이며 해독적인 요소”들에 대한 비판도 함께 지적된다. 즉 민족허무주의와 개량주의, 사대주의 사상, 부르주아 연애 지상주의를 고취한 해독과 함께 1919년 이후 친일반동분자로 전락하여 퇴폐적인 부르주아 반동소설들을 통해 “인민들의 민족자주의식과 계급의식을 마비시키는 해독”을 끼친 친일작가로서의 해악을 비판한다. 특히 『민족개조론』(1922) 등의 해독성을 지적하면서, 이광수가 ‘부르주아 반동작가’로서 “『단종애사』(1929), 『혁명가의 안해』(1930), 『흙』(1933) 등 색정적이며 허무주의적인 반동소설들을 써서 친일적인 민족개량주의와 굴종적인 패배주의 사상, 복고주의사상을 전파”하였음이 비판된다. 특히 『혁명가의 안해』

19) 정홍교·박중원, 『조선문학개관』(I), 사회과학출판사, 1986(인동, 1988), 338-339면.

는 김일성의 교시에서처럼 “혁명가, 공산주의자들을 중상모독함으로써 공산주의에 대한 불신을 부식하려고 책동”한 사실이 기존 문학사적 평가와 유사하게 전개된다.

결론적으로는 이광수의 ‘신문학운동’이 “부르쵸아민족주의사상자체가 진보성을 상실한것과 마찬가지로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지 않는 반인민적이며 반동적인 길을 걸었으며 민족문학의 건전한 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sup>20)</sup>했음을 지적하면서 비판적 평가를 마무리한다.

하지만 『조선문학개관』에서는 이전의 문학사적 비난 일색이던 작가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일정한 긍정성을 도입하여 문학적 평가의 균형감각을 회복하고 있다. 즉 이광수의 『무정』이 표방한 근대문명의 지향, 계몽주의적 관점과 자유연애 사상, 언문일치체의 실현 등에 대한 평가는 남북한 문학사에서 교집합적인 평가로 작동될 수 있는 것이다.

## 2) 1990년대 초반 『무정』 비판 - 『주체문학론』(1992)

1992년 간행된 김정일의 『주체문학론』은 1980년대말 동유럽의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기 시작한 이후, 위기의식이 팽배해진 가운데 등장한 문학방법론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특히 ‘2. 유산과 전통’이라는 항목에서 ‘20세기 초엽의 우리 나라 문학작품을 더 많이 찾아내고 옳게 평가하여야 한다’(82쪽)라며 이광수를 북한의 문학사에 정당하게 편입시킬 것을 지적하는 부분은 1980년대 이래로 문학사의 변화된 시각을 확인하게 한다.

20) 정홍교·박종원, 『조선문학개관』(I), 사회과학출판사, 1986(인동, 1988), 340면.

작가와 문학작품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서는 작가의 출신성분이나 가정환경, 사회정치생활경위를 문제시하면서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작가의 출신과 사회생활경위가 복잡하다 하여도 우리 나라 문학예술발전과 인민의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한 좋은 작품을 썼다면 그 작가와 작품을 아끼고 대담하게 내세워주어야 한다.

우리는 리광수의 소설과 최남선의 시도 문학사에서 응당한 수준에서 취급하여야 한다. 장편소설 《개척자》를 비롯한 리광수의 초기 소설들은 1910년대의 우리 나라 소설 문학의 대표작으로서 당대의 사회악에 대한 불만이 일정하게 반영되어 있다. 언제인가 수령님께서 길림육문중학교에서 청년운동을 할 때 리광수의 소설 《개척자》를 읽어보았는데 그 작품에는 당대 사회에 대한 불만이 표현되어있었다고 하시면서 리광수는 그후에 《혁명가의 아내》라는 소설에서 자기가 변절하였다는 것을 드러내놓았다고 교시하시였다. 리광수가 초기에 쓴 장편소설이 당대 사회현실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고 1910년대 우리 나라 소설문학의 대표작으로 되고있는것만큼 그의 초기 작품의 긍정적 측면을 문학사에서 취급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sup>21)</sup>

인용문은 이광수의 문학이 유산이자 전통에 해당할 수 있음을 거론한 대목이다. 즉 『무정』(1917) 이후 『매일신보』에 연재되었던 『개척자』(1918)를 위시한 1910년대의 이광수의 초기 소설들은 “당대의 사회악에 대한 불만”을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특히 김일성이 길림의 육문중학교에서 청년운동을 하면서 『개척자』를 읽었다는 점이 언급되며, “당대 사회현실에 대한 불만” 표현이 작품의 긍정성으로 제시된다. 1920년대 이후 이광수가 『혁명가의 아내』(1930) 등에서 ‘자신의 변절’을 드러냈기 때문에 중기 이후가 아니라 초기 작품의 긍정성은 문학사에서

21) 김정일, 『주체문학론』,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83면.

취급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개진되는 것이다. 『조선문학사(19세기 말~1925)』(1980)에서 “떠벌이던놈”이라는 원색적 비난 표현으로부터 ‘작가적 변절’이라는 순화된 평가까지의 거리가 1970년대 김일성 시대의 문학과 1990년대 김정일 시대의 문학의 이광수 문학을 향한 평가의 거리를 보여준다.

1980년대 중반 『조선문학개관』과 달리 1990년대 초반 『주체문학론』에서는 1910년대 이광수의 장편소설을 이야기하면서, 최초의 근대적 장편소설인 『무정』이 아니라 『개척자』를 주목하는 시각이 두드러진다. 그것은 김정일이 ‘김일성의 교시와 말씀’을 의식하면서도 자신의 문학사적 인식론을 펼친 대목으로 해석된다. 즉 김정일이 김일성과 다르게 문학적 외연의 확장과 공정한 평가를 주문함으로써 이광수의 문학적 유산과 전통을 새롭게 해석할 여지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당문학적 성격의 북한문학을 감안할 때 ‘부르조아 계몽문학으로서의 신문학’이 언급된 『조선문학개관』에서의 문학사적 평가는 『주체문학론』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 4. 『무정』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입체적 평가

##### 1) 1990년대 후반 『무정』 비판 - 『문학대사전』(1999)

1999년 사회과학원에서 출간된 『문학대사전』의 ‘『무정』’ 항목은 최근에 이루어진 북한문학에서의 평가를 보여준다. 즉 주제 사상에 서의 “심중한 결함”에도 불구하고, 언문일치체가 실현되어 “비교적 생동한 언어형상을 통하여 당대의 사회적모순의 일단을 보여주고 계몽적인 내용을 밝힘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근대소설양식을 확립하고 현대소설을 개척하는데 일정한 기여”(295쪽)를 제공한 점이 높

이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부르주아 반동작가’에서 ‘떠벌이던놈’, ‘부르주아 계몽문학의 선구자’로 기록되던 작가적 변천을 거쳐 작품에서도 ‘근대 소설 양식의 확립’과 ‘현대소설의 개척’에 대한 공로가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무정》 장편소설 주체 6(1917)년 리광수 창작. 『매일신보』에 련재되었다. (중략) 식민지사회현실에서 우리 민족이 겪는 수난과 참화를 일정하게 보여주면서도 일제의 총독정치의 죄악상에 대한 비판이나 조국의 광복과 독립에로의 지향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문화계몽적인 주제사상을 강조하는데 기본을 둔 것은 이 소설의 본질적인 사상적 결합이다. 당시의 조선현실에서 사람들을 교육하고 문명개화하는것도 일정한 의의를 가지지만 그것만으로 식민지 노예로 전락된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 조선민민의 활로를 개척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소설의 사상적 약점과 제한성은 민족허무주의적관점과 사대주의적사고방식의 표현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그것은 주인공 형식을 애국문화계몽운동에 나섰던 민족주의자인 박진사의 딸 영채가 아니라 친미종교인인 김장로의 딸 선형과 결합시키고 그들을 미국에 류학보내는것과 함께 영채와 병욱을 일본에 류학을 시켜 공부를 하게 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신문명을 보급하면 게으르고 기력없는 조선사람이 《새롭고 잘 사는 민족》이 되고 《어두운 세상이…밝게》 될것이라고 주장한데서 나타나고 있다. 소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부족점은 리광수의 민족주의사상의 제한성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장편소설 『무정』은 그 주제사상에서 심중한 결합을 가지고있지만 언문일치가 기본적으로 실현된 비교적 생동한 언어형상을 통하여 당대의 사회적모순의 일단을 보여주고 계몽적인 내용을 밝힘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근대소설양식을 확립하고 현대소설을 개척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sup>22)</sup>

22) 사회과학원, 『문학대사전(근~현)』(2), 사회과학출판사, 주체88(1999), 294-295면.

인용문에서 드러나듯 『문학대사전』에서는 “문화계몽적인 주제사상”을 강조한 것이 소설의 “본질적인 사상적 결함”에 해당한다고 지적된다. 작품에서의 ‘종자’를 강조하는 북한문학 특유의 주제론적 관점이 평가의 중심에 놓여 있음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그리고 이어서 교육을 통한 문명개화가 지닌 ‘일정한 의의’를 인정하면서도,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는 방향이 될 수는 없음을 분명히 한다. 결과적으로 “민족허무주의적관점과 사대주의적사고방식의 표현”이 드러난다는 점이 사상적 약점과 제한으로 지목되는 것이다. 즉 『무정』에서 드러난 이광수의 민족주의 사상의 제한성이 『민족개조론』으로 이어지는 친일문인의 면모를 보여주는 원형 텍스트에 해당한다고 문학사적 비판의 공식적 명도를 박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말미에서 드러나듯 언문일치의 실현을 통한 언어 형상의 생동성, 당대 사회적 모순의 일단을 표현한 점, 계몽적 내용의 제시 등을 통해 ‘근대소설 양식의 확립’과 ‘현대소설의 개척’ 공로를 인정한 점은 이광수에 대한 객관적 평가의 진실보를 보여주는 대목에 해당한다. 사전적 평가의 공식성이라는 점을 통해 볼 때 장황하게 지적하는 사상적 결함과는 다르게 짧지만 문학적 의의를 공정하게 기록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문학적 성과의 구체적 근거를 귀납적으로 피력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추상적 성과 인정에 불과한 편협된 태도를 보여준다.

## 2) 2000년 이후 『무정』 비판 - 『조선문학사7』(2000)

2000년에 출간된 『조선문학사7』(2000)은 ‘이광수의 공적’을 높게 평가한다는 점에서 기존 문학과와 대표적인 차이가 드러난다. 즉 “1910년대 부르조아민족주의운동의 시대사조에 편승하여 부르조아 계몽주의 사상을 고취하는 작품”(129쪽)들을 창작한 대표적 작가로

이광수가 거론된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주체문학론』에서 김정일이 “장편소설 『개척자』를 비롯한 리광수의 초기소설들은 1910년대의 우리 나라 소설문학의 대표작으로서 당대의 사회악에 대한 불만이 일정하게 반영되어있다”(129쪽)라고 지적한 것을 전거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에 ‘김일성의 교시’가 평가의 절대적 기준으로 작용했지만, 김일성 사후(1994)에는 ‘김정일의 지적’이 주요한 문학사적 평가의 잣대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물론 『조선문학사7』(2000)은 『무정』(1917)에서 “착취 사회의 사회악에 대한 폭로”가 드러난다는 긍정성과 함께, 현실 비판정신이 미미하다면서, “종교적 <박애>사상과 부르주아적 <미덕>도 당대 현실을 미화한 흔적”이라며 비판을 함께 제기한다. 『무정』 텍스트가 지닌 양가성을 함께 들여다보고자 하는 균형 잡힌 인식이 드러나는 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장편소설 <개척자>를 비롯한 리광수의 초기소설들은 1910년대의 우리 나라 소설문학의 대표작으로서 당대의 사회악에 대한 불만이 일정하게 반영되어있다.》(《주체문학론》, 88페이지)

리광수는 부르주아민족주의자로서 초기에 장편소설 《개척자》를 비롯하여 독자들의 구미에 맞는 진보적작품을 썼으며 그의 소설들은 우리 나라 현대소설을 개척하는데서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그는 장편소설 《개척자》를 쓰기전에 장편소설 《무정》(1917년)을 내놓았는데 이 작품에서는 청년들의 사랑과 련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신문명에 대한 청년들의 리상과 시대적기분을 보여주었다.

작품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고아로 된 형식이 가 부자집 가정교사로 되는 과정과 일제 감옥에 끌려간 아버지를 구원하

기 위하여 몸을 팔아 기생이 되지 않으면 안되었던 영채의 비극적인 처지, 영채의 순결한 정조를 무참하게 짓밟은 경성학교 백학감의 추악한 행위 등을 통하여 황금과 권력이 판을 치는 착취사회의 사회악에 대하여 폭로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기본은 신문명에 대한 지향에 초점을 맞추었던 만큼 현실비판정신은 미미하며 종교적 《박애》 사상과 부르주아적 《미덕》으로 당대현실을 미화한 흔적들을 남기었다.

부르주아계몽주의사상에서 경향을 같이하고있지만 《무정》보다 뒤에 창작된 장편소설 《개척자》(1918년)는 《무정》의 약점을 적지 않게 극복하고 낡은 봉건도덕에 저항하는 신시대의 룰리, 개성의 자유와 해방에 관한 사상을 표현하면서 당대의 사회악에 대한 불만을 일정하게 반영하였다.<sup>23)</sup>

『조선문학사7』(2000)에서는 ‘이광수’라는 문학적 개인이 문학사 목차의 전면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즉 7권의 제2편 제2장 제2절 앞머리에 “1. 착취사회의 모순을 파헤치고 사회악에 대한 불만을 보여준 소설”로 ‘이광수의 『개척자』’가 호명되고 있는 것이다. 『조선문학개관』(1986)에서처럼 단순히 “부르주아계몽문학으로서의 ‘신문학’”에 일조한 작가가 아니라 “착취사회의 모순을 파헤치고 사회악에 대한 불만을 보여준 소설”가로서 이광수의 문학적 노력에 대해 1910년대의 문학적 성과로 호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인용문에서 드러나듯 『무정』이 평가의 중심이 아니라, 목차에서 강조하듯 『개척자』가 평가의 주된 대상이다. 『주체문학론』에서는 김일성의 독서 경험과 함께 김정일의 지적이 거론되지만, 『조선문학사7』에 이르면, 김정일이 『개척자』에 대해 지적한 내용이 짧

23) 류만·리동수·한중모, 『제2편, 1910년-1926년문학(1) 제2장 일제식민지통치하의 사회현실을 비판하고 애국독립에 대한 지향을 반영한 문학 제2절 소설문학 1. 착취사회의 모순을 파헤치고 사회악에 대한 불만을 보여준 소설, 리광수의 장편소설 《개척자》』, 『조선문학사7』,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주체 89(2000), 129-130면.

게 언급된 뒤 『개척자』가 『무정』보다 진일보한 작품임이 강조된다. 즉 『개척자』를 비롯한 작품들이 ‘진보적 작품’이며, ‘현대소설의 개척’에 기여한 ‘부르조아민족주의자’로 평가되는 문학 작품으로 공인되고 있는 것이다.

『무정』에 대해서는 “청년들의 사랑과 련정에 대한 이야기”로 요약하며, “신문명에 대한 청년들의 리상과 시대적기분”이 제시되고 있다고 요약된다. 특히 “황금과 권력이 판을 치는 착취사회의 사회악에 대하여 폭로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명에 대한 지향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현실 비판 정신이 미미하며, “종교적 박애사상과 부르조아적 미덕”으로 당대 현실의 미화에 급급했다고 비판한다.

오히려 『개척자』가 “『무정』의 약점을 적지 않게 극복하고 낯은 봉건도덕에 저항하는 신시대의 룰리, 개성의 자유와 해방에 관한 사상을 표현하면서 당대의 사회악에 대한 불만을 일정하게 반영”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김정일의 지적이 수용되어 “사회악에 대한 불만”을 중심으로 『개척자』의 공이 『무정』의 과를 압도한다고 평가되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로서는 시대가 제기한 문제를 일정하게 반영하고 그에 형상을 지향시키면서 사회악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하여 진보적 의의”를 가지며, “신소설에 비하여 인물들의 성격 형상과 묘사, 언어문체 등에서 새롭게 전진함으로써 현대적인 소설을 개척하는데 이바지하였다”(131쪽)라면서 『무정』을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보면 “사회악에 대한 불만”만이 아니라 신소설의 한계를 극복한 근대소설로서의 성과와 함께, 근대적 인물의 형상화와 언문 일치체의 특성까지 함께 고평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종합적 평가가 가능한 것은 김정일이 ‘지적’한 ‘사회악에 대한 불만의 반영’이 문학사적 평가의 핵심적인 ‘중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무정』의 진보성이 『개척자』의 진취성과 함께 고평되어 친일민족반

역자로서의 이광수의 한계를 1910년대 문학에서는 넘어서고 있는 셈이다.

## 5. 결론

이광수의 『무정』에 대한 북한문학사의 평가는 1980년대를 기준으로 양분된다. 즉 1980년대 이전 비난 일색이던 방식에서 점차 긍정성과 부정성을 함께 고찰하는 양면적 평가가 진행된다. 북한에서도 1980년대 중반 이래로 공정한 평가의 대상으로 이광수와 『무정』에 대한 문학적 공과를 함께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주체문학론』 이후 기존의 원색적 비난 일색이던 비판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로 문학사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요약해보면, 『조선문학통사』(1959)에서 ‘부르조아 반동문학가’로만 호명되던 이광수가 『조선문학사(19세기말~1925)』(1980)에 이르러 ‘반동작가’일 뿐만 아니라 일제에 부역하며 동조동근을 “떠벌이던놈”으로 욕설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조선문학개관』(1986)에 이르면 ‘신문학’이 지닌 ‘부르조아 계몽문학’의 특질을 소설에 반영한 작가이자 『무정』의 작가로 호명되고, 『주체문학론』(1992)에 이르면 『개척자』의 작가로서 더욱 주목을 받게 된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평가인 『문학대사전』(1999)에 따르면 주제 사상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근대 소설 양식의 확립’과 ‘현대소설의 개척 공로’를 인정받게 되고, 『조선문학사7』(2000)에 이르면 “착취 사회의 사회악에 대한 폭로”가 지닌 진보적 의의와 함께 언문일치체와 현대 소설의 개척 공로를 긍정적으로 평가받게 된다.

결론적으로 북한문학사에서 이광수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 비판의 대상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다고 판단된다. 1950년대

에는 ‘부르조아 반동작가’로 비난 일색이던 방식에서 1980년대 ‘부르조아 계몽문학’의 작가를 거쳐 1990년대 이래로 ‘근대 소설 양식의 확립’과 ‘현대소설의 개척 공로’까지 함께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다만 남한에서 근대적 장편소설의 효시로 평가받는 『무정』이 아니라 그 다음 작품인 『개척자』가 문학사적으로 더 나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관점의 차이가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의 대상에 불과하던 부르조아 반동작가에서 문학적 공로를 인정받는 부르주아 계몽주의 작가로 평가가 전환되고, 『무정』과 『개척자』 등의 작품에 문학사적 평가가 재고된 것은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본고는 1950년대 이래로 2000년대에 이르는 북한문학사에서의 이광수의 『무정』에 대한 평가의 변화과정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무정』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남북한 문학의 문학사적 접근 방식과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는 작업에 해당한다. 하지만 그러한 남북한 문학에서의 텍스트적 인식의 차이를 통해 문화적 이질성을 확인함으로써 오히려 남북한 통합문학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확보하는 작업이다.

■ 참고문헌 ■

-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1』, 민음사, 2002, 199-205면.
-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2』, 민음사, 2002, 411-452면.
- 권영민 편, 『북한의 문학』, 을유문화사, 1989, 13-27면.
- 김영민, 「남·북한에서의 이광수 문학 연구사 정리와 검토」, 『동방학지』 83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94, 157-192면.
-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1』, 숲, 1999, 566-619면.
-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 115-128면.
- 김재용, 『북한 문학의 역사적 이해』, 문학과지성사, 1994, 11-31면.
- 김정일, 『주체문학론』,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83면.
- 류만·리동수·한중모, 『조선문학사7』,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주체89(2000), 129-130면.
- 박종원·최탁호·류만, 『조선문학사(19세기말~1925)』,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0, 176-179면.
- 사회과학원, 『문학대사전(ㄹ~ㅂ)』(2), 사회과학출판사, 주체88(1999), 294-295면.
-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통사(현대문학편)』, 사회과학출판사, 1959 (인동, 1988), 33-91면.
-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 『조선문학사 8』, 사회과학출판사, 1992, 5면.
-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 『조선문학사 14』, 사회과학출판사, 1996, 29면.
- 서대숙, 서주석 역,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청계연구소, 1989, 120-140면.
- 안함광, 『조선문학사』, 연변교육출판사, 1956, 47-50면.
- 은중섭, 『조선 근대 및 해방전 현대소설사 연구』2,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 100-109면.
- 정홍교·박종원, 『조선문학개관』(I), 사회과학출판사, 1986(인동, 1988), 338-340면.
- 황정현, 「북한 문학사의 시각과 이광수 연구사-『조선문학개관』 이후의 인식 변화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제66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6, 375-403면.

<Abstract>

A Study on the Change of Literary History  
Recognition of North Korean Literature on Lee  
Kwang Soo's Novel 『Mujeong(Heartlessness)』

Oh, Tae-Ho

The purpose of this manuscript is to examine literary historical perceptions of 『Mujeong(Heartlessness)』 from North Korean literature in commemoration of the 100th anniversary of Lee Kwang Soo's novel 『Mujeong(Heartlessness)』. The evaluation of North Korean literature on Lee Kwang Soo's 『Mujeong(Heartlessness)』 is based on the 1980s. In other words, in the way of the blame before the 1980s, the two-sided evaluation which gradually examines both affirmation and negativity progresses. Since the 1980s, North Korea has also recorded literary merits and demerits about Lee Kwang Soo and Novel 『Mujeong(Heartlessness)』 as subjects of fair evaluation.

In the history of North Korean literature, from the 1950s until the 1970s, it was referred to as the "bourgeois reactionary writer" centered on 『Joseon Literary Syntax』(1959). However, in the mid-1980s, the opening of the 『Chosun Literature Overview』(1986) was regarded as a writer who reflect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bourgeois enlightenment literature". Then, in the 1990s, when the 『Juche Literature Theory』(1992), it became more attention as the writer of 『Pioneer』. As a recent evaluation 『Joseon Literature History 7』(2000),

I appreciate the progressive significance of "the exposition of social evil in exploited society". Especially, it is positively evaluated that the style of 'the unity of speech and writing', the establishment of modern novel style, and the pioneering efforts of modern novels.

However, it is not the subject of 『Mujeong(Heartlessness)』 that is evaluated as first of modern novels in South Korea. On the other h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point of view of the history of literature of North and South reveals that the next 『Pioneer』 is better evaluated as literary history. Nevertheless, it is important that the bourgeois rebellion writer, who was merely an object of criticism, is transformed into a bourgeois enlightened writer who is recognized for his literary merit. It is encouraging that the evaluation of literary history has been reevaluated in works such as 『Mujeong(Heartlessness)』 and 『Pioneer』.

Key words: Lee Gwang Soo, 『Mujeong(Heartlessness)』, 『Pioneer』, bourgeois rebellion writer, bourgeois enlightenment literature, establishment of modern novel style, modern novel pioneering achievement, the unity of speech and writing

투 고 일 : 2017년 8월 1일      심 사 일 : 2017년 8월 1일-9월 8일  
 게재확정일 : 2017년 9월 9일      수정마감일 : 2017년 9월 18일